

영산강변 익새·코스모스길 따라 형형색색 두 바퀴

자전거 동호인·가족·친구 등 1000여명 참가
극락교~승촌보~영산대교 가을 정취 만끽
초·중학생 백일장 대회...난타 공연 등 다채

두 바퀴로 달리며 영산강 경치와 감바람에 실려오는 코스모스 향(香)을 느낄 수 있는 '2015 그린(Green) 자전거축제'가 25일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자전거 동호인, 가족·친구 등 지역민 1000여명이 참가해 익새와 코스모스로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영산강변 도로를 달리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했다.

전용 자전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전거 전용 슈트를 갖춰 입은 동호인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편한 트레이닝복에 헬멧만 착용하고 나와 자전거를 빌려타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사이클연맹과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자전거사랑전국연합광주본부 주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후원해 ▲사랑코스(45km)와 ▲행복코스(25km)로 나누어 비경쟁 퍼레이드로 펼쳐졌다.

행복 코스는 가족·친구들이 함께 달리며 가족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를 출발, 코스모스 향을 맡으며 서장교~승촌보를 천천히 둘러보는 코스로 계획됐다.

사랑 코스의 경우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이 익새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극락교~승촌보~나주대교~영산대교를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만들어졌다.

붉은 헬멧, 푸른 고글, 노란 유니폼 등 1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움직이면서 화려한 색깔의 향연이 영산강변을 따라 펼쳐졌다.

영암 삼호중공업 소속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원들, 이른바 '자·출·사' 족 33명도 영암·목포에서 올라와 감바람을 맞으며 영산강변을 달리는 축제에 참여했다.

김종근(67)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장은 "극락교에서 출발, 익새 물결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영산강변 자전거길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 대회도 이날 행사장 인근에서 산문과 운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신나는 난타 식전행사도 풍성했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난타 공연은 '2015 그린 자전거축제' 참석자들의 분위기를 돋우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출발전 누워있는 자전거

'2015 그린 자전거축제' 현장을 드론을 이용해 내려다 본 모습. 출발을 앞두고 참가자들이 놓아둔 형형색색의 바퀴와 프레임의 자전거들로 가득하다.

/김진수기자 jeans@



가을 속으로 신나는 질주

25일 영산강변 일대에서 열린 '2015 그린 자전거축제 대행진'에 참가한 1000여명의 라이더들이 청명한 가을 아침, 감바람을 맞으며 승촌보·나주대교를 향해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이색 참가자

“자전거로 30kg 감량하고 가족愛 살찌웠죠”



네살 아들과 함께 김병일씨

25일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진행된 '2015 그린(Green) 자전거축제'에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달린 커플이 있었다. 아빠의 등을 잡고 길을 달린 아들, 부자의 질주가 가을 영산강길에 펼쳐졌다.

김병일(34·광주 산정동)씨는 이날 뒷자리에 아들 시우(4)군을 위한 전용 안장을 장착하고 25km를 달렸다. 하늘하늘 피어있는 코스모스와 갈대밭의 운치로 가득 찬 길을 달리면서 부자는 즐거운 가을 나들이를 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자전거 타기는 가족의 정까지 돈독하게 하는 특별한 취미가 됐다.

김씨는 “키가 191cm인데 몸무게가 110kg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운동을 못하게 됐는데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30kg를 감량했

다”며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좋고 재미있는데 밖을 달리며 얼마나 재미있을까하는 생각에 지난 여름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을 달리게 된 김씨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한다.

김씨는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던 풍경들을 보게 되고, 운동을 하면서 술도 줄이게 됐다. 걸어서는 먼 거리일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면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을 보고 달리게 된다. 주말에는 틀이 나는 대로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오고 있다”며 “오늘은 특별히 아들과 먼 거리를 달려봤다. 아이도 많이 좋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내년에는 아이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마음 내키는 날, 부담없이 함께 달려요”

SNS 자전거라이딩 '병개'

'2015그린 자전거축제'가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만남과 질주의 장이 됐다.

25일 행사장에는 '광주자전거라이딩' 소속의 45명이 걸음을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전거를 즐기는 젊은이들의 즉석 만남, '병개'였다.

김준범(21)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모임이다. 김씨는 마음 내키는 날, 부담없이,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에 페이스북에 '광주자전거라이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10대와 20·30대로 나눠 페이스북에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올리면 시간이 맞는 이들이 나와 함께 달리는 '병개'다.

김씨는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나가야 하고, 회비도 부담이 된다. 혼자 타기는 심심해서 모임을 만들게 됐다. 실내 운동은 답답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여행



하는 기분이다. 나주에 가서 곰탕을 먹고 오기도 하고 화순·목포 등도 달린다”고 말했다. 회원 윤병환(20)씨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라이딩을 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면 고민을 잊게 됐다. 많은 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자전거길이 잘 정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